

# 2020년 29회 공인노무사 노무사 단기 노동경제학 100% 적중

안녕하세요,,

노무사 단기에서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용수 강사입니다.

2020년 29회 공인노무사 노동경제학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2020년 노무사 단기(커넥츠 단기)의 노동경제학 순환 강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간략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제 수업 및 노무사 단기의 노동경제학 수업을 소개하는 공개강의의 일정은 학원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29회 【문제 1】

근로소득장려세제는 노동경제학을 강의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강사와 수험생 모두가 중요시하는 핵심 논제입니다. 따라서 순환별 강의를 충실히 따라 오신 수험생분이시라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중시되는 논제를 올 해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토픽(근로소득장려세제)을 중시하더라도 그 주제 안에서 구체적 설문(논점)을 준비하여 목차를 준비하는지 여부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최근 COVID-19의 사회적 이슈가 공인노무사 노동경제학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정부 정책을 탐색하면서 'EITC'의 노출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3순환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1문에서는 수요독점, 2문에서 노동공급이 출제되었으므로 2020년도에는 1문(50점)에서 노동수요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으나, 그래도 노동공급에서 출제가 된다면 'EITC'가 제일 유력하니 3순환에서는 꼭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EITC가 출제된다면 점증, 평탄, 점감 구간이 시간당 임금율의 상승, 비근로소득의 발생, 부의 소득세제와 연계되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므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것을 기본 및 1기 강의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노무사 단기 GS 3기 모의고사 문제와 1기 수업의 판서를 함께 첨부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경제학

【문제 1】 소득-여가 선택이론에서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 물음 1)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소득-여가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10점)
- 물음 2) 근로소득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여가 평면에서 경우의 수에 따라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단, 비근로소득은 없으며, 여가는 정상재이고, 임금을 변화시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항상 큼) (30점)
- 물음 3) 근로소득장려세제로 인해 예상되는 정책효과를 설명하십시오. (10점)

【문제 1 - 2】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근로 소득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들이 수혜계층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5점)

물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비하여 부의 소득세제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시오.(12점)

물음 4) 소득구간별로 근로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시오.(13점)

10쪽

사회복지과 1-28

\* 복리프로그램과 리유인

1. 전통적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 부의 소득세제 → 3. EITC

모든 계층에 근로의욕 ↓

변화에 없는 소득정책

(... 근로시간 상한선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근로소득 100% 저가  
초기부담감의 이동

→ 제도 자체가 노동 여가도  
제공해 줌으로써 노동의  
유대효과를 얻지

→ A라는 근로소득이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

근로 제한하면 일생일대의  
손실이 발생.

노동은 할 줄 모르거나  
최저보다 감당하기 힘들  
(... 대체효과)

대 =  $w \downarrow \rightarrow L \downarrow$   
소 =  $w \downarrow \rightarrow L \downarrow$

③은 노동여가 노동 상한선까지 → EITC.

A: 절충적인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

B: 완전한  
C: 절충적인

A =  $L^S \uparrow$  ( $\because$  대 > 소)

← 어느  
소득층에 발생  
(100% 근로소득저가)

-2020' 물음 2), 물음 3) 논점 완벽 적중

**CONNECTS** 노무사단기

## 29회 【문제 2】

물음 1), 물음 2), 물음 3)은 George J. Borjas 의 노동경제학(7판)의 보상적 임금격차 파트에서 순차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0기와 1기의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하신 수험생분들, 3순환 1회 모의고사 2문을 잘 정리하신 수험생께서는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문제 2】 헤도닉 임금이론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축은 산업재해율, 세로축은 임금)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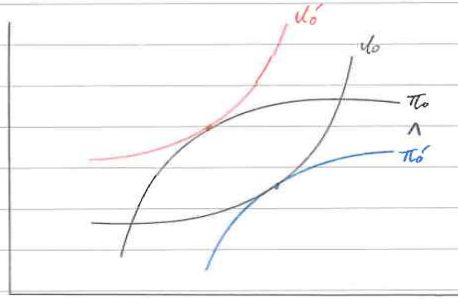
- 물음 1) 임금-산업재해율 평면에서 근로자 A와 B의 무차별곡선이 교차한다. 산업재해위험에 대한 두 근로자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5점)
- 물음 2) 임금-산업재해율 평면에서 기업의 등이윤곡선(isoprofit curve) 특성 3가지를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10점)
- 물음 3) 현재 근로자와 기업은 최적화상태에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효용과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10점)

## 2020' 노무사 단기 GS 3기 1회 모의고사 2문(2020년 7월 4일 수업)

【문제 3】 헤도닉 임금함수는 직업의 특정 위험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 간의 관계를 연결한 조합의 궤적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퀵서비스 라이더 노동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건강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각 노동자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완전 경쟁적 배달 고용 시장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마스크 정화 기술수준은 변함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는 언론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라이더 노동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흡입을 이전 보다 꺼리게 되었다. (25점)

- (1)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경우 임금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시오. (10점)
- (2)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후에 고용주와 라이더 간의 헤도닉 임금함수 변화를 설명하시오.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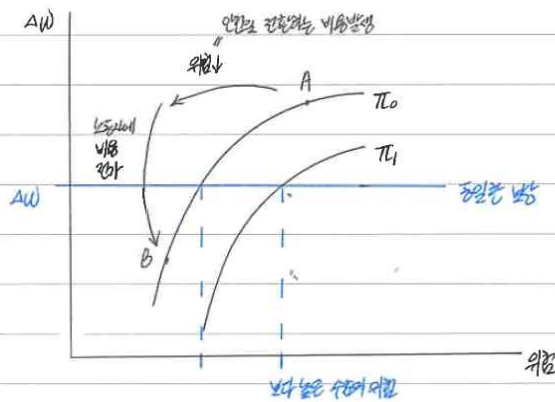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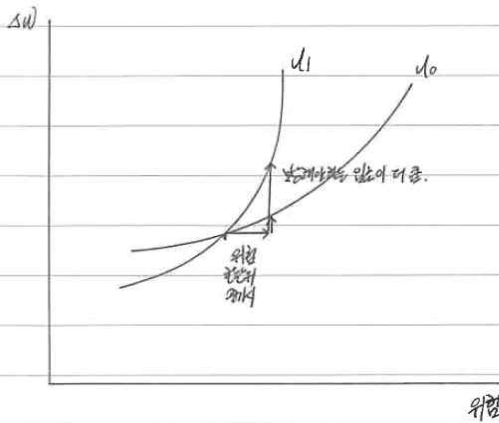
\* 3분 - 설문(2) \*



23라:  $\max u$   
s.t.  $\pi_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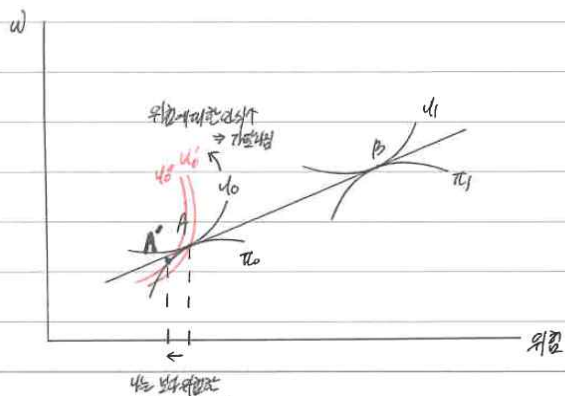
가령:  $\max \pi$   
s.t.  $u_0$

서로 서로에게 최적점이라 부족함.



위험 = 위험을 낮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있음

⇒ 보다 작은 비용으로 동일한 값을 보충해 줄 수 있는  $\pi_1$  만큼 위험이 더 높다.



$\max u_0 \rightarrow u_0'$   
s.t.  $\pi_0$

$u_0 = f(w^0, L^0)$

$u_0' = f(w^0, L^0')$

위험은 동일하여 발생하는 효용의 증가분이

있을 때 동일하여 발생하는 효용의 증가분보다 크다

( $\therefore$  나의 위험 회피성향)



## 29회 【문제 3】

2기와 3기부터 노동시장의 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차별의 주요 토픽으로는 편견에 의한 차별(게리 베커의 차별 모형, 기업주, 동료, 고객에 의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계적 차별,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Oaxaca(오하카) 분해를 주요 논점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기출 흐름에 부응하도록 계산형 문제로 GS 3기 1회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하였습니다.

【문제 3】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남녀간 임금의 차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5점)

물음 1)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5점)

물음 2) 차별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사용하고, 교육연수(S)만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자. 남성(M)의 임금함수는  $W_M = \alpha_M + \beta_M \cdot S_M$ , 여성(F)의 임금함수는  $W_F = \alpha_F + \beta_F \cdot S_F$ 로 주어진다. 여기서  $\alpha$ 와  $\beta$ 는 각각 절편과 임금계수를 나타낸다. 일명 Oaxaca분해에 의하면, 성별 평균임금격차(WD)는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WD = A + B + C = (\alpha_M - \alpha_F) + (\beta_M - \beta_F) \cdot \bar{S}_F + \beta_M \cdot (\bar{S}_M - \bar{S}_F)$ . 여기서,  $\bar{S}_M$ 과  $\bar{S}_F$ 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를 나타낸다. 만약 WD의 괄호 안이 모두 양(+)이라고 하면, 세 항목(A, B, C) 중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4점)

물음 3) 임금(세로축)-교육연수(가로축) 평면에 물음 2)에서 제시된 남녀 임금함수를 그린 후,  $\bar{S}_F$  수준에서 성별 평균임금격차 중 차별부분을 표시하십시오. (6점)

2020' 노무사 단기 GS 3기 1회 모의고사 2문 (2020년 7월 4일 수업)

【문제 2】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과 임금격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5점)

(1) 전문 노동연구원 갑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교육연수에 따른 임금소득 관계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험적 실증분석 결과 교육연수(t) - 임금(w)에 대한 단일 회귀 모형을 도출하였다.

남성 노동자의 회귀 모형 :  $w_m = 25 + 3t$

여성 노동자의 회귀 모형 :  $w_f = 15 + 2t$

남성 노동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12년, 여성 노동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10년으로 전제할 때,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계산하시오. 또한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오하카 분해를 통해 설명하시오.(12점)

(2) 전문 노동연구원 을은 기혼여성과 남성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경력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을 경력단절 모형과 오하카 분해를 응용하여 분석하시오. (13점)

0704 노동경제학 1회라

1문 노동시장

2문 차별

원인(1) 오하카분해법  
원인(2) 경력단절모형

3문 보충임금격차

원인(1) 일반인정분석  
원인(2) 최소임금함수

(GS-3-1-2 포인트. 문제3) 생각해보기.

차별 : 기업  
동료  
고객  
→ d (차별계수 등)  
→ 동제적차별  
= 편견없이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차별 존재



개시비커 = 정보마킹 (::완전정보) / 편견의 소유주에 대해서 차별보상

동계각차별 = 정보비대칭으로 차별보상

"고용주. 동노. 고부 등 개이 구성원들이 노동에 대한 편견은 보유하고있지 않다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 노동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시장에서  $w^f$ 와  $VMR$ 이 일치하는 노동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2문 \*

키워드: 차별 임금격차

↳ 차별없는 경우:  $w = VMR (= P \cdot MP_L)$

$w^m > w^f$  늘 차별이나 하고있음

$VMR^m > VMR^f$  면 차별 아닐것

⇒ 남녀간 생산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건 여성이 사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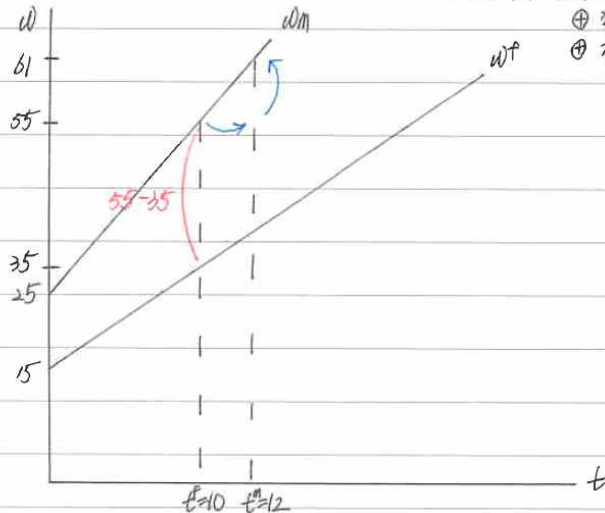
차별받고있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 ⇒ "모하카분해법" = 숙련도 + 차별

↑ ⊕ 격차 (성별(2))

성별(1)의 모하카분해법은 숙련도와 단순히 근무연수에서 비롯된 것의 여백.

(취업연) 22년 취업 후, 출산/육아로 인한 정육간격 → 인공과보 ↓ →  $MP_L$  ↓ → 임금격차 ↑.

성별(1)의 성과별은 과대평가되어있음! ⇒ 성별(2) 정육간격보정 (정육간격으로 인한 인공과보의 격차와 같은 생산성의 하락에 의해 보정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 차별의 기본원리:  $\downarrow w = VMR = P \cdot MP_L \downarrow$

⊕ 정육간격으로 인한 인공과보의 증감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보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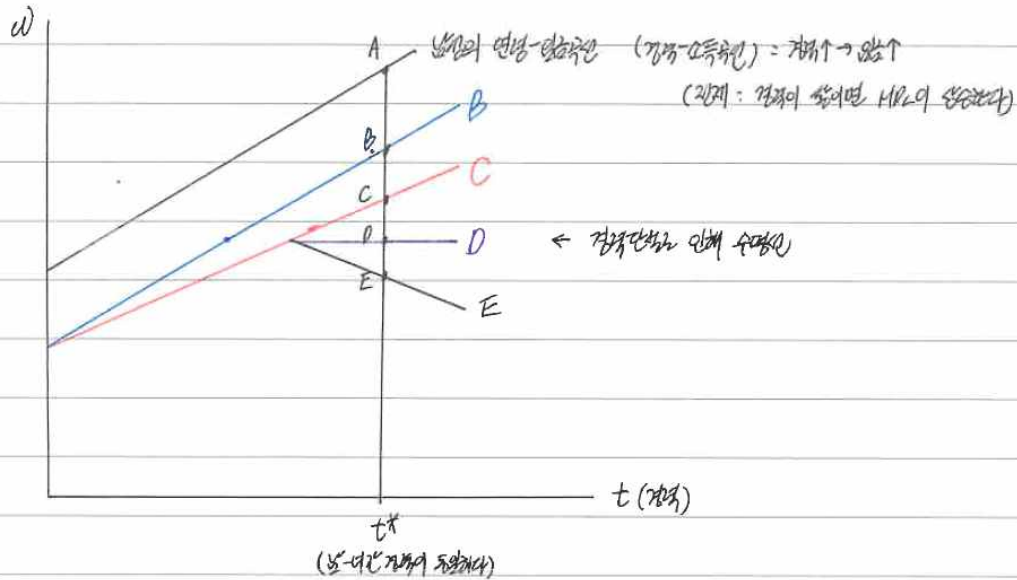
모하카 분해법

= 숙련도  $b$  + 차별  $ZO = 2b$

( $\Delta t = 2$ ) ↑ → 인공과보 ↑ →  $MP_L \uparrow$  →  $\Delta w = +b$

"인적자본량이 감소" =  $MR \downarrow$

(본문 12b: 459p (248))



AB: 취업이전 교육연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w$ 의 격차, 즉  $b$  (성분(1))  $\Rightarrow$  차별X  
MR

BC: 기업이 여자에게 더 적은 사내교육훈련 (직업특화훈련) 실시  $\rightarrow$  적은 인적자본형성  $\Rightarrow$  차별X

CD: 교육연수상실  $\rightarrow$  "  $\rightarrow$  차별X

DE: '정제상실률' = 대학에 소년 결핵의 포진율을 10년 후 밖에서 계속 사용한다.

$\rightarrow$  정제단위로 인해 그레이트가 적어진다.

인적자본상실  $\Rightarrow$  차별X.

\* 주의) '정제단위로 인해'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본형성에는 차별적 요소 없음. (모두  $MR \downarrow$ )

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우호적 제도를 잘못 인식한 결과. 라고 사설로 가리키기 주의.